

설립취지문

한-미, 한-EU FTA가 발효되어 국내 법률시장이 2단계의 수준으로 개방되었고, 3단계 개방 시점을 내년 상반기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수의 영미법계 글로벌 로펌들은 국내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고, 재한 외국변호사들은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사 자격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해당 외국법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로펌들은 내년부터는 국내변호사를 직접 채용하거나 국내 로펌과 합병하여, 국내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 법률시장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법률전문가들의 역할과 비중의 확대는 한국 법률시장의 질적·양적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변혁의 시점에서 재한 외국법률전문가들은 고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지식정보를 교환하고, 우의를 나누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외법률 실무교육 및 학술교류, 회원권의 옹호,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한 정보 교류, 공익활동 참여, 공공 연구·조사 프로젝트 수행,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해나감으로써 한국 법률시장의 선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사단법인 “국제법률전문가협회(International Legal Experts Association, ILEA)”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창립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양진, 김기태